

뉴질랜드산 유제품 중국시장에서 강세

aT청뚜지사

중국내 마트에서 수입산 우유 진열대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인 일반 소비자도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임. 2017년 중국유업품질보고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중국의 수입 유제품 총량은 217.7만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2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수입총액은 63.8억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2.9% 증가함.

대중국 유제품 수출 국가별로 보면 뉴질랜드가 78.9만톤을 수출하여 36%의 점유율을 차지하였고, 미국은 31.2만톤으로 점유율 14%, 독일은 28.9만톤으로 점유율 13%, 프랑스는 19.7만톤으로 9%, 오스트레일리아는 14.9만톤으로 7%의 점유율을 차지함. 이외 기타국가의 수입량은 44.3만톤으로 점유율 21%를 차지함.

중국시장에서 뉴질랜드가 높은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는 주요 원인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 깨끗한 공기, 비옥한 토양, 맑은 수자원 등의 천혜의 자연환경이라는 소비자들의 인식. 둘째는 2008년 중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을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음

최근에는 뉴질랜드산 신선우유는 이력추적시스템 구축을 통해 중국내 수입통관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신선우유 시장 개척에도 노력하고 있음.

신선우유의 경우 콜드체인 운송시 0-4℃에서 보관되어야 하며, 유통기한은 7일에서 15일 정도로 검역통관과정에 대해 아주 민감한 제품임. 최근 상하이에서 통관된 뉴질랜드 신선우유는 QR코드를 이용 생산이력정보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통관소요시간을 대폭 단축시켰는데 상하이 출입경검역검역국에 따르면 3~4일 소요되는 검역통관과정을 시간단위로 단축하여 검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함.

중국 수입신선 우유시장에서 한층 더 경쟁력을 제고 할 것으로 전망되어 한국산 신선우유의 시장 점유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신규유통채널 발굴 및 기존 채널에서의 적극적인 마케팅 추진이 필요한 상황임

자료원 : 검객망(2017.11.21), aT청뚜지사